

# 잊혀진 '5월 현장' 서 역사를 돌아보다



광주비엔날레 작품이 전시된 옛 광주국군병원에서는 아피차퐁 위라세타룬의 '별자리'(왼쪽)와 마이크 넬슨의 '거울의 울림'을 만날 수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폐허처럼 느껴지는, 을씨년스러운 하얀 2층 건물이 보인다. 깨진 유리창, 무너진 건물 안까지 타고 들어온 바스락거리는 담쟁이 덩굴, 주사실이라 적힌 낡은 팻말, 창살이 쳐진 병실... 바로 이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것부터가 '관람'의 시작이다. 2018 광주비엔날레를 관람한 이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공간 중 하나가 바로 이곳, 옛 국군광주병원일 것이다.

## 광주비엔날레 GB커미션 옛 국군광주병원을 가다

깨진 유리창·창살 쳐진 병실·이발소 등 그대로 살려 마이크 넬슨·카테르 아티아·아피차퐁 작품 설치  
오후 3시부터 도슨트 동행...비엔날레관·전당 전시도



비엔날레 본전시관에서 만나는 카테르 아티아의 '이동하는 경계들'.

1964년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문을 연 옛 국군광주병원(5·18사적지 23호)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으로 기업사에 연행돼 심문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폭행으로 부상당한 시민들이 치료를 받았던 곳이다. 광주정신의 지속가능한 역사와 이를 둘러싼 담론의 시각화를 위해 신작프로젝트 'GB커미션'을 진행한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개막 전부터 참여작가들에게 광주의 역사성이 담긴 여러 장소를 소개했고 3명의 작가가 이곳을 전시공간으로 택했다.

실에서도 만날 수 있다. 작품 '이동하는 경계들'은 광주 트라우마센터를 통해 만난 5·18 유족들의 이야기와 정신과 의사 정혜신 등의 인터뷰를 통해 상실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 한국이 참전하기도 했던 베트남전의 흔적들에 대한 현지 인터뷰와 심리학·민속학자의 목소리도 담아 트라우마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생각을 던져준다. 이 작품에서 눈에 띄는 건 국군병원에서 가져온 의자와 의족, 신발 등을 배치한 설치물이다. 조명을 받은 채, 낡은 의자에 놓인 의족을 보고 있으면 쉽게 치유되지 못하는 '상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전시장엔 차분히 앉아 영상을 관람하는 이들도 눈에 많이 띄었다.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아피차퐁 위라세타룬의 작품 '별자리'는 낮과 저녁에 보았을 때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

가온다. 어둠이 내린 오후 7시에 시작되는 투어에 참가했다. 건물 뒤로 돌아 들어가 외부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간다. '별자리'는 대강당을 비롯해 병실, 이발소, 당구장 등 공간을 이동하며 만나는 장소특정적 설치 작품이다. 컴컴한 공간에 꽃무늬 커튼을 비추는 아련한 조명이 보인다. 관람객들은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 작가가 곳곳에 설치한 조명과 소리, 영상과 오브제를 만난다. 특히 아피차퐁은 무인으로 움직이는 기계장치들을 통해 이야기를 건넨다. 당구공들이 움직이고, 그림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무너져 내린 지붕 아래 틈 사이로는 영상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강당에 들어서면 그림들이 번갈아 가며 관객들을 만난다. 아피차퐁은 "판타지같은 느낌으로 그린 광주·전남의 풍경화를 수집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중 이강하 작가의

'월출산 마을', '노승' 등 세 작품과 정선휘 작가가 1991년 계림동 철길 풍경을 그린 '길따라'를 채택, 작품에 활용했다. 또 화장실과 이발실, 병사들의 오락거리였던 당구대 등 곳곳에는 과거의 기억과 역사의 흔적이 담겼다. 병원 본관 옆 붉은 벽돌의 '국광교회'에서는 마이크 넬슨의 '거울의 울림(장소의 맹점, 다른 이를 위한 표식)'을 만날 수 있다. 병원에서 떼어낸 수십개의 거울로 만든 설치작품이다. 천정에 대롱 대롱 매달린 거울은 제작각의 모습이다. 깨진 유리창 등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담긴 공간에 걸린 거울들 속에 자신의 모습이 비친다. 또 다른 거울이 오버랩되고 폐허같은 공간도 투영된다. 거울엔 손씻기, 군인의 머리 길이 등의 글귀가 그대로 적혀있다. 역사의 흔적들이다.

한편 아르헨티나 작가 아드리안 비사르 로하스의 작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1관에서 전시중이다. 작가는 광주극장에서 제작된 신작 '별들의 전쟁'과 함께 고전영화의 장면을, 이전에 DMZ 내 양자리 마을에서 제작한 '전쟁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상영중이다.

◇관람방법  
오는 11월 11일까지 휴관일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국군병원 전시는 안전 문제로 도슨트와 함께 관람해야한다. 마이크 넬슨과 카테르 아티아의 작품은투어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총 6회 30분 간격으로 운영된다. 아피차퐁 위라세타룬의 작품은 오후 5시30분, 7시 2차례 관람할 수 있으며 40분 정도 소요된다. 관람 10분 전에 도착해야하며 일몰 시간에 따라 추후 시간이 변경될 예정이다.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출입이 제한되며 마스크를 쓰고 관람해야한다. www.gwangjubiennale.org/gb/exhibition/viewinfo.do. 문의 062-608-433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문예회관 '무등의 봄' 환해졌네 최영훈 화백 "희망적 분위기로 27년만에 재작업"

지난 1991년 문을 연 광주문예회관은 다양한 장르의 수준높은 공연이 열리는 지역 문화예술의 요람이다. 광주문예회관 로비에 걸린 최영훈 화백의 '무등의 봄' 작품이 최근 새롭게 단장돼 눈길을 끈다. <사진>  
150호 크기의 '무등의 봄'은 1990년 광주 예술인과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광주문예회관 착공 당시 최인기 시장의 요청으로 기증된 작품이다. 광주의 상징인 어머니산 무등산과 함께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들이 어우러진 '무등의 봄'은 최시장이어서 "광주를 대표하는 무등산을 테마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림"을 요청받고 최화백이 작업한 작품이다. 이호계 시장 시절인 1992년, 문예회관이 준공되면서 로비에 걸렸던 '무등의 봄'이 27년만에 새 옷을 갈아입었다. 가끔 공연 관람을 위해 문예회관을 찾았던 최 작가는 몇년 전부터 작품을 볼 때마다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다. 제작 당시였던 1990년대 작품이 현재 스타일에 비해 다소 무거운 편이요 요즘의 밝고 화사한 느낌으로 '다시' 그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난 여름 공연을 보러갔다 그림을 보고 결단을 내린 최 화백은 문예회관 측에 의사를 표시했고, 그림을 돌려 받아 3주 정도 작업실에서 맘 흘리며 작품을 다시 그린 후 9월 초 완성작을 걸었다. 최 화백은 "그림을 볼 때마다 늘 다시 그리면 어떻까 생각했고 이번에 좀 더 밝고 화려한 색채를 담아 희망적인 느낌으로 다시 작업했다"며 "문예회관을 찾는 시민들도 그림을 보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나명주 기자 mjna@

## 김은지 교수 '포스트모더니즘' 강연

### 광주시립미술관 내일

광주시립미술관이 기획한 미술이론 전문강좌 '미술관 아카데미' 6번째 강의로 김은지 교수(홍익대학교 예술학과·사진)를 참여,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 관한 강연을 진행한다. 18일 오후 3시 미술관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의 주제는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이해'로 김 교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양식인 사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작품을 설명할 예정이다.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은 다양성을 인정하며 제3세계 미술, 여성미술 등에 주목해왔다. 또 실제에 대한 대안으로 명작을 차용하고 패러디하기도 했다. 이번 강의는 광주비엔날레에



등장하는 다양한 이미지 중 제3세계, 전쟁, 폭력성, 여성 등에 관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를린 예술종합 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미술사 박사학위를 받은 김 교수는 현재 미술평론가, 전시 기획자로 활동중이다. 한편 10월(23일) 부산비엔날레를 방문하며 11월과 12월에는 현대조각의 이해(최태만 국립대 교수), 미디어아트 강의 예정돼 있다. 무료 강좌. 문의 062-613-7153. /김미은 기자 mekim@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2018 신양파크호텔 **객실 리모델링 기념 가을축제** 기간: 2018.9.1(토)~11.30(금)

**축제 1** 객실 가을 패키지 & 한가위 패키지 (9.22 - 26 (5일간))  
객실 리모델링 기념 가을 패키지 **60% DC**  
한가위 패키지 **70% DC**

**축제 2** 1층 레스토랑 '테마니' 스파게티 & 스테이크 축제  
커피 스파게티 3,000원  
스파게티 13,000 ~ 16,000원  
스파게티 코스 (스프+샐러드+스파게티+커피) 22,000원  
돈가스 코스 (팬+스프+샐러드+돈가스+디저트+커피) 18,000원  
안심스테이크 코스 (팬+전채요리+스프+샐러드+스테이크+디저트+커피) 50,000원

**축제 3** 신양파크호텔 사우나 이용권 증정  
1층 티파니 이용고객 ₩15,000당 **사우나 이용권 1매 증정**  
(연회장 및 조식 이용 고객 제외)

신양파크호텔 예약문의 ☎ (062)228-8000, 221-4101